



블룸버그 사례로 본
‘연봉 1달러 공직자’의 세계
 News ▶ 4p

올해 원-엔 환율 전망
엔低보다 원高가 더 큰 문제
 Stock & Money ▶ 20~21p

제356호 2014년 1월 5일~1월 6일
 http://sunday.joongang.co.kr
 9 771976 026400 0.1
 ISSN 1976-0264

중앙SUNDAY

2014년은 한국문화 대탐사의 해

온 국민 문화권 누리는 원년 시공 넘어 문화대장정 나선다

(문화기본법 시행)

“나는 문화다!”
 역사적인 선언이다. ‘나’를 ‘문화’로 규정하는 명제는 우리에게 낯설다. 그간 우리는 성과주의에 빠져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사이 소중한 문화가치들을 매몰시켜버렸다. 넘쳐나는 영상매체가 주는 재미에 빠진 나머지 혼자 책 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도 문화강국, 문화시민이길 바란다.

2014년은 문화기본법의 시행으로 국민 모두에게 ‘문화권’이 부여된 문화원년이다. 바야흐로 문화와 예술의 시대다. 하지만 내적 성찰과 창조적인 작업 없이 문화와 예술은 꽃피지 않는다. 기본기 없는 용성은 없다. 읽기와 사색은 문화 창조의 출발점이다. 그를 통한 우리 문화 원형 탐사가 선행될 때 비로소 세계로의 울림을 겨냥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SUNDAY는 아산정책연구원·문화국가연구소와 함께 연중기획 한국문화 대탐사를 시작한다. 생활문화 현장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심층 탐구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한국인의 시간 미학을 소개한다.

김종록 문화전문기자·작가
 kimkisan7@naver.com

해 뜬 동쪽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하늘을 섬겨 왔다. 경주 계림숲 너머 첨성대는 하늘을 관찰하고 섬겼던 이 땅 사람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천문대는 시간의 등대다. 언뜻 도자기를 떠올리게 하는 고색창연한 원통형 천문대 위, 정(井)자형 장대석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재는 틀이었으리라.

바람이 분다. 마른 금빛 잔디 밭에 겨울바람이 분다. 몸을 움츠리고 사뽕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바람이 잠깐 속속인 사이, 경쾌한 집시풍의 바이올린 음향이 울려 퍼진다.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바이젠이다. 빠르고 긴박감 넘치는 선율! 불꽃 튀는 기교. 꼬마 연주자 박지연(11·서울 목동초 3)이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껏 재량을 뽐내자 햇살이 환하게 웃는다. 금빛 잔디밭이 섰노랗게 빛난다.

“저 끼, 저 강단과 절대음감! 너무 놀랍고 애뜻해. 저 어린 것이 이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당차게 연주하는 것 좀 봐. 저 끼가 바로 한국인의 예술혼이야.”

지언이를 처음 만난 분청사기의 거장 윤광조(69)는 감격한다. 1994년부터 경주시 안강읍 바람골에 터 잡고 사는 그는 시간의 강을 건너온 바람의 닢 같은 예인이다. 선객(禪客)의 풍모는 곧 그의 내면세계이기도 하다. “한국에는 어언 200년 동안 분청이 사라졌다. 그것을 회생시킨 이가 바로 윤광조다.” 2011년 뉴욕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의 도록의 기록이다.

우리 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세계로 울림 기대할 수 있어 한국인의 시간·공간·인간상 본지 연중기획으로 심층 탐구

도자기 왕국으로 자부하는 한국에서 국민 그릇으로 쓰이던 분청(粉靑)이 200년간이나 사라졌었다니.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50개국 가운데 한국의 ‘현대문화 지수’는 9위, ‘전통문화 지수’는 29위였다. 자기 나라의 전통 가치와 문화유산에서 동력을 찾지 못하고 화려한 무지개만 좇는다고 문화강국

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림 그리기에 앞서 깨끗한 바탕을 갖추라는 회사후소(繪事後素). 본질 연후에 꾸밈이 있다. 부실한 바탕에 화려한 꾸밈은 도리어 추태로 남기 쉽다. 송례문 졸속 복원의 교훈이다.

유형, 무형의 전통문화 유산 속 한국인의 시간은 하늘의 별처럼, 혹은 자격루의 물처럼 느리게 순환한다. 그러다 근대화로 발 빠른 서구문화의 추격자가 되면서부터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는 속도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압축성장은 했지만 행복 지수는 OECD의 바닥권이다.

분청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수궁이 시간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거장은 말한다. 휴관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고 한 달가량 비닐 장막을 친 그늘에 둔다. 때로는 석 달을 말렸다 글자를 새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표면처리엔 순간적으로 이뤄진다. 개칠(改漆)이 안 되기 때문에 물찬 제비 같은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긴 기다림과 재빠른 솜씨가 조화를 이룰 때 명작이 나온다. 기다림과 재빠름의 조화, 과거와 현대의 조화. 이 시리즈가 추구하는 목표다.

▶관계기사 14~15p



첨성대는 시간의 등대다. 그 등대 앞에서 분청사기의 거장 윤광조(69) 선생과 바이올린 영재 박지연(11) 어린이가 만났다. 두 예술인은 1400년 전 선덕여왕이 세운 첨성대 앞에서 나이 차를 잊고 평생 친구가 되기로 언약했다. 조용철 기자

바이든 “中 화웨이 한국 진출 우려”

(통신장비업체)

정홍원 총리에게 밝혀... 매케인도 “한·미 관계 심하게 나빠질 것”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가 한국의 무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한 데 대해 지난달 초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또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화웨이가 한국 무선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할 경우 한·미 관계가 심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 문제가 한·미 간 외교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달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와 1시간 15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화웨이의 한국 진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잘 알겠다”

고 답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정 총리와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중국 정부와 연루 의혹이 있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고려할 때 한국의 통신 인프라에서 화웨이가 큰 지분을 갖도록 한국 정부가 결정한다면 미국과 미 의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go over very badly)”이라 밝혔다고 미국 인터넷신문인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은 신문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맹방이 아니다. 미군 2만8500명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전선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며 “미국의 국가안보 이

해는 한국 정보 네트워크의 진실성(integrity)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신문도 바이든 부통령이 정 총리에게 화웨이의 한국 진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서울에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정보기관들에 화웨이의 한국 진출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민주)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민주) 상원 정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화웨이의 한국 진출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8p에 계속



S Magazine 2014 문화캘린더

문화 별판을 내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2014년 천하를 뒤흔든다. 클래식 거장과 명문 오케스트라들이 속속 내한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세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DDP)가 3월 새로운 명소로 탄생한다.

1부 1000원 / 월 5000원
 정기구독 문의·고객센터 080-023-5005

고품격 일요신문 중앙SUNDAY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만나세요

알림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태블릿 버전은 유·무료 발행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중앙SUNDAY가 2013년 12월 15~16일자(제353호)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LG 옵티머스, 팬택 베가 시리즈 등 국내외 구형 안드로이드 기



디지털 에디션에는 중앙SUNDAY 뉴스 섹션과 스페셜의 콘텐츠를 기본으로 갤러리 섹션, 포토 섹션이 추가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중앙SUNDAY를 만나보십시오. 스마트폰 버전은 시범서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선보인 중앙SUNDAY 디지털 에디션은 각계의 호평 속에 태블릿, PC 버전, 애플 아이폰 버전을 각각 발행해 왔습니다. 중앙SUNDAY 디지털 에디션은 출시 초부터 애플 앱스토어의 ‘뉴스가판대’에서 인기 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용 방법 :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중앙SUNDAY’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아이패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갤럭시 노트 태블릿 및 넥서스 계열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